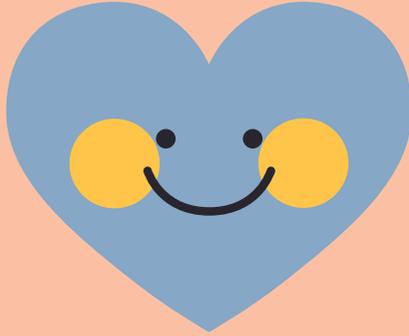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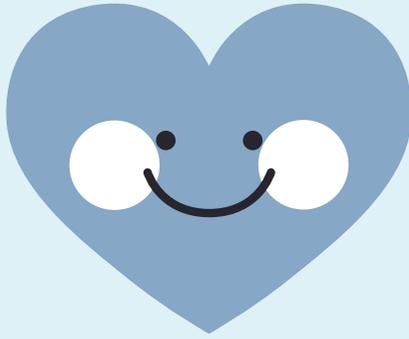
장애인들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꽃이 피는 감리교회



2024년 장애인 선교주일  
2024. 4. 21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The General Board of Missions KMC



2024년 장애인 선교주일  
2024. 4. 21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The General Board of Missions KMC

## Contents

목회서신\_ 이철 감독회장 / 05

장애인선교주일을 정성껏 지켜주십시오

설교예문 1\_ 유흥주 목사 / 08

장애를 사랑하라고요?

설교예문 2\_ 정현범 목사 / 12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논문\_ 이창범 전도사 / 17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델 연구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찬 예문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1\_ 김종복 목사 / 32

장애인교회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차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2\_ 이혁 목사 / 44

장애인들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 장애인들과 동행하는 의성서문교회 이야기



## 장애인선교주일을 정성껏 지켜주십시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행 3:6)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온 감리교회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제정한 자랑스런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는 뜻이며, 웨슬리 신앙으로 사회적 성결을 이루려는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소외로 고통 받고 억눌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장애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현실을 볼 때 그들의 아픔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적 결함 뿐 아니라 편견이란 사회적 장애는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는 256만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정부와 사회공동체 모두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과 권리를

보장받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전후 주일을 ‘장애인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선교주일은 21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장애인선교주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61:1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와 포로 된 자, 눈 먼 자와 눌린 자에게 복음과 자유, 다시 보게 함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친구요, 구세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13)고 말씀하심으로, 사회적 편견과 신체적 아픔을 지닌 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차이를 구분하고, 차별을 일삼는 우리 사회와 달리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시키고, 서로 돕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세상으로 내놓으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그의 사역 초기에 돌보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약자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일과 영광을 드러내야 참으로 교

회의 의미가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으로 죄인과 약자와 장애인에게 편안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힘써 장애인을 향한 전도와 봉사를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성이 회복된 교회,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세상의 빛이 되는 감리교회는 이를 통해 실현됩니다. 올해 장애인선교주일은 바로 이런 교회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자리에서 구분없이 예배하는 주일을 보내면 어떨까요? 올해 준비한 자료에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준비한 실제적인 것들을 담았습니다. 뇌병변 1급, 청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온 몸을 비틀며 혼신을 다해 설교하는 마포지방 너와 나의 교회 유흥주 목사는 장애의 개념이 '비교'의 'Handicap'에서 '고유의 차별화된 능력'인 'Disabled', '다른 능력'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합니다. 너와 나의 교회는 중증장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는데 비장애인들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애에 묻히기 보다 장애를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장애인선교주일을 통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져 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동회장 이 철

# 장애를 사랑하라고요?

## 이사야 53:2~3 / 요한복음 1:14

유 홍 주 목사

(뇌병변 1급, 청각장애 4급)

(서울연회 마포지방회 너와나의교회)

### | 사 53:2~3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 |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목사님, 함께 나눌 최근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자신의 장애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던 비장애인 전도사님이나 삼십 후반의 두 분 장애인 집사님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한 말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 요 5: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순간, 7년 전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 예배실에서 만난 ‘재민’이와 엄마 ‘K’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떨쩍하던 애, 어느날 갑자기 다리몽둥이 분질러서 병신놈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비수가 날아든 느낌이었습니다. 아차!! 하는 사이에 기약 없이 귀한 외동아들 병간호하면서 가슴 한편에 한(恨)으로 쌓인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었습니다.

| 요 9: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90%가 넘는 장애인이 후천적 중도장애인입니다. 나와 같은 선천성 장애인들은 긴 적응기간을 걸쳐 ‘길들여지고’, 강원래처럼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만, 또한 많은 중도장애인들의 자살율이 비장애인들 보다 2~3배에 높습니다.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시 42:10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NO’라고 하지만, 재민이 엄마처럼 ‘장애’를 ‘Handicap(

불리한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장애인(사회)과 비교와 경쟁을 할 때 불리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장애는 ‘싫음’이고, ‘억울함’입니다. 사람들은 신께 “왜?(why)”를 묻지만, 예수님은 “어떻게(how)”를 말씀하십니다.

#### | 고후 12:8~10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대가는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은(솔라이에르마히) 하나님과 대면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나만’ 생존(生存)하기 위한 ‘비교와 경쟁’이 아닌 ‘같이(Together)’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존재입니다.

#### | 창 4:4~5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최근 장애의 개념이 ‘비교’의 ‘Handicap’에서 ‘고유의 차별화된 능력’인 ‘Disabled’, ‘다른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면, 나를 알아야(사랑해야, 애정이 있어야 한다)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거울도 안보는 여자’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손거울 쥐고, 자신을 가꾸는 여인

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내일의 기회를 잡고 성취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봅니다.

##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 빌 4:11~13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장애가 중하여 힘들 때 당신의 장애보다 더 큰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어,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그대가 능히 감당하고 이김을 주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장애에 묻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 |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 요한복음 9:1~12

정 현 범 목사  
(동부연회 강릉복지방회 영진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장애인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며 고결한 영혼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던 케베스라는 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죄 많은 육신의 세계에 사느니 차라리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케베스는 말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집에서 혹시 소나 당나귀를 기르는가?” “예 당나귀를 기릅니다.” “그런데 자네가 보살피고 기르는 그 당나귀가 당신의 허락도 없이 자살해 버린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떠하겠는가?” “예, 그 당나귀에 대해 노여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벌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일세. 신이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며 기르는 목적이 있다네. 우리는 신이 부를 때까지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꿈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 손가락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불필요한 손가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데가 있습니다. 겉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 생명의 소중한 맹인이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자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찬양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 1. 예수님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맹인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장애인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나 농아인, 신체적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 속에는 무의식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맹인 소년 가장으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굳은 의지와 도전으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하여 한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박사가 된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으며 유엔 세계장애

위원회 부의장과 루스벨트 재단 고문으로서 6억 5천만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두 고개를 젓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생각이 이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혼 후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던 어느 교회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두 내외분은 자녀를 얻기 위하여 8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 같이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기를 받아든 두 내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중증 뇌성마비였습니다. 두 집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집사님 내외는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가정에 굶은 가시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원망하다 쓰러진 부인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아이를 품고 팔도강산을 8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단다.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길까? 누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결국 너를 선택하였단다. 미안하구나. 그러나 너라면 충분히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겠기에 이제야 너에게 맡기노라.” 이후 집사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 사랑으로 잘 키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맹인으로 난 것이나 장애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 2.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그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이신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므로 노동을 한 것이 되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추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 법을 위반한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고쳐 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그는 선지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에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고 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인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날 때부터 맹인인 자기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서 보게 되었다고,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내신 메시아인 인자요, 주님이라고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닙니다. 다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귀한 일꾼, 이웃에게 덕과 유익을 주는 향기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논문

#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델 연구

이창범 전도사  
(경기연회 안양지방회 우화교회)

## I. 서론

## II. 본론

1. 장애와 레이투르기아(Leiturgia)
2. 장애와 하나님 나라

## III. 결론

## I. 서론

먼저 본 글은 필자가 작성한 2019학년도 석사학위 논문(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델 연구 - 예배의 공동체성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전반부는 예배의 공동체성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신약교회, 수도원 운동, 웨슬리의 예배 신학, 독일의 디아코니아 운동을 정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후반부는 예배학자들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들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글은 전반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를 다루기보다, 장애인들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 II. 본론

### 1. 장애와 레이투르기아(Leiturgia)

장애를 영어로 표현할 때, Disability로 표현한다. Ability가 능력을 의미한다면, Disability는 무능력일 것이다. 오늘날 장애인을 지칭하는 Disabled를 장애를 넘어 Able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재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무능력함으로 소외되었다.

예배를 지칭하는 단어 중, 레이투르기아(Leiturgia)는 그리스어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laos), 일을 뜻하는 에르곤(ergon)의 합성어로, ‘백성들의 일’이라는 의미이다.<sup>1</sup> 이 단어가 세속적인 기원에서는 도시나 국가의 유익을 위한 공공

<sup>1</sup>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37.

의 일을 의미했다.<sup>2</sup>

또한 이 말은 본래의 부분들의 합 이상의 무엇을 이끌어 내는 공동의 활동을 의미한다.<sup>3</sup> 예배가 곧 하나님 백성들의 일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란 개인의 일이기보다는 공동의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이투르기아,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지점을 가진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경험 자체가 값진 일이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장애로부터의 해방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소외와 배제의 경험과는 상반되는 경험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떡과 잔을 받아먹고 마시며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기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파토스는 비장애인들과 차별점이 있다.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 품은 기도를 비장애인들이 온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차별점이 장애인들의 기도가 더 가치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성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성찬에 대하여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보우머(John C. Bowmer)는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수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sup>4</sup>고 주장하였다. 사실, 성찬에 참여함에 교회 내부 구조의 문제나, 분급 방식에 신체적인 장애가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배려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을 돕는다거나, 분급 중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신비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평소 장애로 인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찬 분급을 할 때에 이동시간을 충분히 배려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조바심 없이 신비의 시간을

<sup>2</sup> Ibid., 37.

<sup>3</sup> Alexander Schmemmann,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서울: 복있는사람, 2008), 35.

<sup>4</sup> John C. Bowmer,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in early methodism (London: Dacre Press, 1951), 103-12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435에서 재인용.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성찬은,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신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이들이 이 식탁의 의미를 지적으로 완벽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과, 환대 속에서, 그리고 하늘에 오른 그 신비감 가운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드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매 주일 다른 본문으로 선포되는 설교보다는, 반복적인 성격이 강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레이트르기아 공동체로서의 성찬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자리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찬은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다. 장애를 가진 이들의 감사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주신 것에 대한 조건적 감사가 아닌,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조건에 대해 온전한 감사이다.<sup>5</sup>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memmann)은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sup>6</sup> 오히려 비장애인이라 부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너머의 앎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적 부자유로 인한, 또는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의 지점을 넘어선 감사드림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들의 예배가 우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예배드림이 귀한 일임을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름을 넘어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이들은 받아드리고, 한 몸 안에서 비록 표현을 서투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일한 노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의 식탁에는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예수께서 식탁으로 초청한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었다. 장 바니에(Jean Vanier)는 누가복음 14:12-14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sup>5</sup> 김홍덕, 『교회여! 지적 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포라』(대전: 대장간, 2013), 114.

<sup>6</sup> Alexander Schmemmann, 『하나님 나라의 성찬』, 김아윤, 주종훈 역(서울: 새세대, 2012), 244.

“예수님은 ‘너희는 잔치를 베풀 때 친척이나 가족, 형제나 자매, 부자 이웃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지 마라. 서로 기분을 맞추고 맞장구를 쳐 주며 편안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마라’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런식으로 잔치를 한다. 친한 사람들을 부른다. 한 사람이 ‘당신은 최고예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아니, 당신이 최고예요. 지난번에 네게 고급 양주를 주었잖아요, 다음에 나도 좋은 술을 선물할게요’하며 비위를 맞춘다. 이런 우정은 아리스토텔레스식 우정, 동등한 사람끼리 나누는 우정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잔치를 열고 멋진 성찬을 차리려면 가난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멀고 불구가 된 사람들을 초청해라.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sup>7</sup>

## 2. 장애와 하나님 나라

슈메만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sup>8</sup>이 곧 성찬이라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곧 사랑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도 사랑의 자리이다. 성찬의 자리에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떡과 잔이 봉헌될 때, 그리스도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각기 봉헌물을 가져왔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따로 때어놓기도 하였는데, 이 성찬의 제물은 사랑의 희생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sup>9</sup> 누구의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봉헌의 신학적 의미는 이 사랑의 제물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데에 있다.<sup>10</sup> 이 사랑의 표현, 신적 사랑의 표현으로 이들은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더 나아가 제정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다.

<sup>7</sup> Jean Vanier, Stanley Hauerwas,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진선 역,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36.

<sup>8</sup> Alexander Schmemmann,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이종태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8), 36.

<sup>9</sup> Alexander Schmemmann, 『하나님 나라의 성찬』, 146.

<sup>10</sup> Ibid., 149.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 이들이 -사실 깨어진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부서진 빵이 다시 하나의 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은 사랑이다. 마침내 이들은 사랑으로 남아,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된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사랑 안에서 서로의 발이 되어주고, 서로의 눈이 되어주며, 서로의 손이 되어 준다면, 이 순간 장애로부터 해방된다. 거룩한 모임 안에 나와 다른 외모가 아무런 차별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저 사랑만이 남는 식탁이 바로 성찬의 식탁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성찬의 식탁 안에서 보여 지는 모습들, 들려지는 내용들을 통하여 이 자리가 사랑의 자리임을 알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또한 이보다 앞서 궁극적으로 성령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이에 대하여 김홍덕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들이 지적인 언어로 요약된 성례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성례전을 통해 보통 예배와는 다른 분위기, 그리고 다른 교인들의 모습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배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해준다.”<sup>11</sup>

슈메만의 논의에 따라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성찬이 갖는 의미를 종합하면, 첫째로, 장애인들에게 성찬을 통한 하나님 나라 경험은 궁극적으로 신앙에 확신을 갖게 한다. 매일의 삶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경험과는 대비되는 사랑의 경험은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한다. 이 새로운 삶이란 종말적 삶을 의미한다. 둘째, 이 경험은 사랑의 경험으로써 깨어진 자아가 사랑

11 김홍덕, 『장애신학』(대전: 대장간, 2010), 419.

으로 회복하게 하여, 그릇된 자존감과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 질서의 회복이 그릇된 세상 질서 속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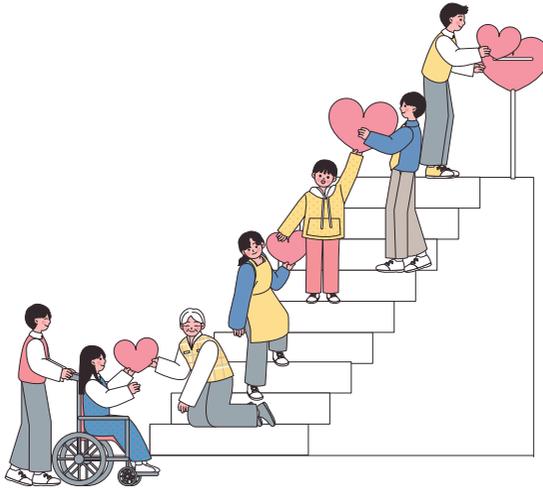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글 마지막에 주일예배 예문을 첨부한다. 첫째로, 예문은 매 주일 드러지는 주일예배의 예문이다. 예문의 큰 구조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과직제위원회에서 출판한 새예배서의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주일 낮 예배의 실례를 참고하였다.<sup>12</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매 주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던, 비장애인이던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통합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의 경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 주일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한 공동체의 경우 예문 등에 특별히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지어 언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특별히 장애인을 지칭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러나 필자가 “자리에 일어서서”라는 지시문과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또는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등을 제시한 이유는 레이투르기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어설 수 없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방법에 맞추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성찬 분급 시에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닌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이유도 동일하다. 설교 전 말씀 묵상을 순서로 삼입하였는데, 회중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필자가 레이투르기아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필자의 경

<sup>12</sup> 신앙과 직제 위원회 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 예배서(개정판)」,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11), 46-57.

협상 능동적인 참여 안에서 소속감을 훨씬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성경 봉독 위원, 봉헌 위원, 찬양 인도자, 설교자로서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종말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슈메만의 논의에 따라 예문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새 예배서의 경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말씀의 선포, 감사와 응답, 세상으로 나아감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삶 속으로 나아감 등으로 바꾸었으며, 새 예배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슈메만은 주님의 기도를 언급하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러하기에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등과 같은 순서를 추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경험, 곧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주제의식을 강조하려 하였다.



## | 참고문헌 |

### 한글 단행본

-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홍덕. 『교회여! 지적 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풀라』. 대전 : 대장간, 2013.
- 『장애신학』. 대전 : 대장간, 2010.
- 신앙과 직제 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 예배서(개정판)』.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11.

### 한글 번역본

- Schmemmann, Alexander.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이종태 역. 서울 : 복있는사람, 2008.
- 『하나님 나라의 성찬』. 김아윤, 주종훈 역. 서울 : 새세대, 2012.
- Vanier, Jean., Hauerwas, Stanley.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진선 역.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 White, James F. 『기독교 예배학 개론』. 김상구, 배영민 역.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찬 예문

##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자리에 일어서서)

(자리에 일어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을 모아  
예배한다는 의미로 두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하다면,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 예배로 부름과 기원 / 집례자

집례자 :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경배찬송 / 다함께 (절기 혹은 본문에 따라)

### 죄의 고백 / 다함께

집례자 : 다함께 기도합니다.

다같이 :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니다. 모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의 말씀 / 집례자

집례자 :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같이 : 아멘.

교독문 / 다함께 (절기 혹은 집례자의 선택에 따라)

찬양 / 다함께 (절기 혹은 본문에 따라)

(자리에 앉습니다.) (두 손을 내려 놓습니다.)

###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경봉독 / (절기 혹은 성서 일과, 혹은 설교자의 선택에 따라)

집례자 :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묵상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신앙고백(사도신경) / 다함께

성찬으로 초대

집례자 :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 어떤 높은 벽이, 그 어떤 간극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벽을 허무셨고, 모든 간극을 이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두움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은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따스한 빛이신 주님은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정사

집례자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집례자 :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옵소서. 차려 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

집례자 :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의 기도

집례자 :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평화의 인사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문안하며 주님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 분병례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 분급

집례자 : 000 00님(이름과 직분).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수찬자 : 아멘

집례자 : 000 00님(이름과 직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수찬자 : 아멘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성찬 받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가슴 위에 손을 X자로 포개어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집례자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찬을 받은 이는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 성찬 후 감사기도

다같이 :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지체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결단의 찬양 / (절기 혹은 성경 본문에 따라)

### 합심 기도

(은혜를 새기며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후 집례자가 기도합니다.)

집례자 : (합심기도를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재량에 따라 설교 메시지와 함께 목회기도를 한다.)

### 교회소식

## 〈삶 속으로 나아감〉

(자리에 일어서서)

파송의 말씀 / 집례자

집례자 : 주 안에서 한 몸인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축도 / 집례자

집례자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예배자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삶으로의 고백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축복송 중 택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손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후주 / 반주자

(후주가 모두 마친 뒤에 예배의 처소를 떠납니다.)

# 장애인교회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차이

김종복 목사  
(중부연회 남동서지방회 하나비전교회)

## 1. 하나비전교회 사역 이야기

1.

‘장애인교회’의 존립이유는 무엇일까? 비장애인교회는 이 질문에 답을 분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경속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장애인교회’를 생각할 때 장애인들만 출석하는 교회를 떠올리지만 장애인 교회 안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있고 추측건대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굳이 선호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교회 건물은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동선이 불편하고 장애에 대한 여러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선택했을 것이다. 또한 동병상련의 마음처럼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에 장애인들만 출석하는 교회를 선택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비장애인들의 시각이 장애인들을 장애인들만 출석하는 교회로 내몰았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은연중에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많이 드러났기에 장애인들이 장애인교회로 방향을 틀게 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차별과 편견에 의해 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과 위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장애인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던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진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 2.

하나비전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다.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율을 따진다면 약 10%정도가 장애인 교인이다. 사실상 하나비전교회는 '장애인교회'라는 말을 써보지도 못한 채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었다. 비장애인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느날 장애인 한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를 위한



공홀함과 배려가 결국 육체적으로 연약한 장애인들이 와도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나 한 단체의 인도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데 담임목사의 열린 눈이 아니었다면 장애인이 교회를 왔어도 장애인 교회로 보내야 하겠다는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등록된 한 장애 교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시각으로 그를 보았고, 결국은 그를 향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

여 교회의 방향이 정해지고 시설물이 세워졌다. 이로 인하여 하나비전교회는 여러 장애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었다.

### 3.

물론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존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과 편견이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은 이미 사회 속에, 그리고 민족의 여러 영역에 자리잡고 있는 편견이었다(가장 흔하게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으로 내모는 단어 : 병어리 장갑).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임을 인정하고 기존교인들의 시선과 잘못된 편견을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때로는 행동으로 수정하여 나갔다.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담임목사가 신학교육을 받았기에 장애인에 대한 신학적 시각이 있었지만 사실 신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고, 담임목사가 공부했던 1980년대 신학 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영역을 깊이 보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을 수정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또한 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들과 대면하여 본 적이 거의 없는 교인들이라 면대면하는 것이 참으로 난제였다. 그때에 사용한 교육방법이 ‘물리적 통합교육’이다. ‘물리적’이라는 의미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교회당의 예배실에 비강제적으로 함께 앉히고, 교회 안에서 동행하게 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의도된 방법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연합하여 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예배나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인들은 장애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자리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요구들을 돌아보고 인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물리적인 통합교육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어린이부터 장년부까지 실시하였다. 이 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은 아주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교육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를 갖게되는 시점부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입게 된 동기나 환경 등을 교육했으며 비장애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의 종류나 유형을 인식하도록 교육의 폭을 넓혀갔다. 이러한 교육의 여정을 4~5년 동안 계속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비장애인들의 차별과 편견의식은 많이 변화되었다.

#### 4.

그런데 문제는 트라우마와 같이 장애인들이 자신의 지나간 경험들로 인하여 무너진 자존감이 너무 깊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죄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추락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



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장애인전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 장애인전용 차량은 장애인들이 교회를 오가는 것에서부터 어느 곳을 가든지 편리하게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되어 조금씩 장애인들의 마음을 열게한 원동력이 되었다. 목욕탕을 가는 일만해도 장애인들이 그들을 비물리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명소들, 심지어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장애인도 갈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도전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보면 측은한 감정과 불편한 시각을 보여주

기에 이런 것에서부터 장애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 가운데 리더자를 세워서 외국을 다녀오게 하였고, 독일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시스템 견학을 통해 비전을 갖게 함으로 그들의 존재감과 비전을 세워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통합된 교회로서의 환경을 만들어 갔으며 이런 사역이 30년쯤 지난 지금 현재의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 장애인들은 믿음생활을 성실히 하여 이제는 교회내 다양한 영역들에서 교회를 섬기는 주체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당당히 하고 있다.

## 5.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토로하며 장애 자녀들에 대한 미래적 발전을 요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장애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이러한 욕구들이 분출되는 것을 파악한 담임목사는 장애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비전센터'를 세우게 된다.

먼저 장애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교회 비장애인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유익한 조건이 더 많았다. 장애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든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유익이 아니라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도자가 방향을 결정한 후, '특수아동선교원'을 세우게 되었다. 이 '특수아동선교원'에서부터 장애와 비장애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선교원이 되었다. 그 이후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상향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국가에서 돌보는 교육 시스템이 되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비전센터'이다.

교회는 늘 여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주일에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하게 되지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의 넓은 공간들이 비어 있다.



때문에 담임 목사는 교회 안의 공간들을 장애 자녀들이 미래 비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세워지기를 계획하고, 장애 아동들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장애자녀들의 미래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 역사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회 안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회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와 감사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가장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20여명이 넘는 교사들과 교회 곳곳의 유휴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장애청년들이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비전센터에서는 자립 문화생활과, 전환기훈련과, 직업전공과 등의 학과와 인턴과정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바리스타등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회 공간을 사용하는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잇점은 교인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편리한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의 제작된 상품들은 모든 교인들이 구입하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

고 있으며, 자녀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생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미 25년 전에 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안식처를 생각하며 ‘엘림하우스’라는 장애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을 계획하였고, 2005년도에 건축을 완공하고 지금도 그 공간을 이용하여 장애청년들의 삶의 방법들을 미래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의 현재의 생활과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은 세상 단체나 기관이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뢰도가 높지 않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역이기에 신뢰도가 높다. 만약 장애인들만 출석하는 교회였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적인 염려도 해보게 된다.

## 6.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좁다. 그러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본다면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자신들의 자존감과 삶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교회임을 재차 재론하고 싶다. 물론 장애인들만 있는 장애인 교회도 나름대로의 교회관과 교회생활의 기쁨 그리고 종교적인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비전을 품고 대안을 찾는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함이 완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구원사역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을 사모해야 하며 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건강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더 다양한 교회의 모양으로 세워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 사역은 장애인 사역을 전공한 자들이나, 장애인의 시각을 갖고 있는 교회만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아님을 기억하고, 강도만난 자처럼 갈바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열린 마음이나 열려져 있는 교회의 모양은 장애인들에게 큰 위로와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특별히 장애인

인을 보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은 10%정도이며 나머지 장애인들은 후천적인 여러 요소로 장애를 경험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도 ‘예비 장애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열린 마음과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늘의 복이 더해짐을 기억해야 한다. 순간적인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감수한다면 섬기는 교회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비전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 II. 하나비전교회 장애인 사역 소개

현재 하나비전교회 내에는 <공홀국>이라 하는 사역그룹이 있다. 공홀국은 교회 내 모든 장애인 성도들의 교회생활, 즉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사역팀이다. 공홀국이 만들어진 이유 역시 통합이다. 장애인 성도들이 비장애인 성도들과 다름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교제의 자리를 나눌 수 있기 위해 공홀국이 존재한다. 공홀국에는 다시 10개의 사역팀이 존재한다.

하나비전센터	
공홀국	
하나선교회 섬김	시각장애인 섬김
주중애찬사역	주일장애인 애찬
스톤주방사역	스톤친교사역
엘리베이터안내사역	주일장애인예배석관리
이·미용봉사사역	수화사역



첫 번째 하나비전교회 내 장애인 성도들은 하나선교회라는 선교회로 모인다. 이들은 1달 2주 1번 모여 함께 월례회를 진행한다. 장애인 성도들의 경조사, 각종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 서로 나누고, 섬김을 받는 것만이 아닌 비장애인들에게 받은 섬김과 감사에 오히려 섬겨주는 역할도 감당한다. 이 하나선교회가 움직이는 행사에 봉사자로 또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는 사역팀이 바로 하나선교회 섬김팀이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 섬김팀이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라는 장애유형의 어려움으로 교회로 오고가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 섬김팀은 시각 장애인 성도들의 맥으로 찾아가 차량에 탑승 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내에서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 또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마친 후,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팀이 시각장애인 섬김팀이다.

세 번째 주중애찬사역팀이다. 주중 하나비전센터의 장애청년들이 교육과 훈

련의 장으로 교회 내 모든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점심식사가 필요하다. 하나비전센터의 점심식사 준비와 정리를 돕는 하나비전센터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사역팀이다.

네 번째 주일 장애인 애찬팀이다. 사람들이 봄비는 주일 점심식사 시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성도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주일 장애인 애찬팀은 장애인 성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장애인 성도들이 자리에 앉으면 식사 배식을 해서 가져다주며, 식사를 마치면 빈 그릇을 정리해 주는 사역팀이다.

다섯째 스톤주방사역팀이다. 하나비전교회 2층에는 하나스톤카페가 있다. 하나스톤카페는 단순히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가 아닌, 하나비전센터의 장애인 청년들의 재활과 직업훈련의 장이다. 장애인 청년들이 직원으로 일하기에 커피 주문과 카페 설거지 등을 함께 감당하며 돕는 손길의 사역팀이다.

여섯째 스톤친교사역팀이다. 2층 하나스톤카페에 장애인 성도님들 또는 도움





이 필요한 성도들이 오셔서 스톤 카페를 이용할 때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역팀이다. 서빙과 보조, 안내를 통하여 장애인 성도들 또한 새가족 성도 등이 편안하게 2층 스톤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팀이다.

일곱째 엘리베이터 안내사역팀이다. 다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주일 예배 전후시간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 성도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움직임이 어렵다. 이에 하나비전교회의 엘리베이터 3대 중 1대는 장애인들만을 위하여 움직인다. 장애인 엘

리베이터를 안내하는 사역팀원이 휠체어를 움직이는 장애인 성도들을 태워 교회의 곳곳에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역팀이 바로 엘리베이터 안내사역팀이다.

여덟째 주일 장애인 예배석 관리사역팀이다. 하나비전교회 3층 본당 중간 좌석과 맨 뒷좌석은 휠체어를 댈 수 있는 좌석으로 마련되어 있다. 주일예배에 참여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자리를 안내하고 배석하여 예배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팀이 주일 장애인 예배석 관리사역팀이다.

아홉째 이·미용 봉사사역팀이다. 이·미용 봉사사역팀은 현직 또 전직의 이·미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달 3번째 주일 오후, 장애인 성도들의 이·미용 봉사를 한다. 이·미용이라는 재능으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팀이 이·미용 봉사사역팀이다.

열 번째 수화사역팀이다. 수화사역팀은 교회 내 모든 예배에 찾아오는 청각장

애인을 위하여 수화로 섬긴다. 수화통역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역자가 교회 내 수화교실을 열고 이 수화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수화통역사가 되어 수화통역의 사역을 섬긴다. 수화사역팀을 통하여 청각장애인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섬긴다.

공화국과 함께 하나비전센터는 하나비전교회의 장애인 사역 중심축이다. 하나비전센터는 역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발달장애청년들의 직업교육과 재활의 터전이다. 하나비전센터에 입학한 장애청년들은 하나비전대학이라는 커리큘럼으로 움직여진다. 주단기케어반(중증장애청년), 직업교육과정 4년, 전환기훈련과정 3년, 인턴과정 2년을 거쳐 하나일터(보호 작업장)로 취직하기에 이른다. 하나비전센터를 통해 장애청년들은 기본훈련, 작업훈련, 운동, 작업치료, 도예, 홈패션, 커피 제과제빵, 양초공예, 비누공예, 난타, 태권도, 핸드벨, 미술치료 등의 수업을 받으며 매일의 일과를 보낸다.



## 장애인들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 장애인들과 동행하는 의성서문교회 이야기

이 혁 목사

(삼남연회 경북북지방회 의성서문교회)

의성서문교회는 개척하면서 '작은 자들을 위한 교회'라는 지향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의성에 내려와 처음 맞이한 주일이 때마침 장애인선교주일이었지요. 저는 이를 의성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저의 막내아들도 장애를 안고 태어난 터라 '장애인'은 제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의성에 내려와 가장 먼저 연결된 곳도 의성장애인부모회였습니다. 교회 1층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의성의 장애인 가족들이 수시로 모여 서로 위로하고 다양한 활동들(장애인 가족 힐링 프로그램, 의성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아동과 부모를 위한 계절학교, 연중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 성인을 독서프로그램, 원테이스쿨, 장애인가족과 후원자들이 연말에 함께 모이는 우리들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장애인 가족들의 쉼터이자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터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부모회 회장 가족은 교회에 등록하여 의성서문교회의 첫 세례자가 되었고 지금은

집사 직분도 받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공동체에는 장애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평생 한 번도 넘어보지 않았던 이들이 교회 문지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교제하면서 마음을 열더니 함께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현재 의성서문교회에는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신체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 수가 12.2%(2022년 5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달할 만큼 장애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들은 지역의 당당한 일원임에도 여전히 낙후된 장애인 인식과 복지행정, 그리고 무관심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주변부로 밀려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보듬고 참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소외된 이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곳이라면 마땅히 우리 주변에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작은 자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겠지요.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피해야 합니다. 좀 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지요. 장애를 천벌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인식은 우리의 의식과 태도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들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너무 과한 배려는 어찌면 차별이 될 수도 있음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들과의 동행의 원칙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입니다.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동체적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나 너무 앞서 나가면 장애인들은 오히려 그 자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성서문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함께 예배하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경험할 뿐입니다. ‘함께’라는 말 안에는 저마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상대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장애인들이 믿고 의지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그들의 환한 웃음을 마주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장애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든든한 곁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꽃이 피는 감리교회

## 2024년 장애인 선교주일 자료집

발행일 2024년 4월 12일  
발행인 태동화 (선교국 총무)  
편집인 이승현 (선교국 사회봉사총환경부장)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40  
디자인 디자인통